기획논문

산책가, 니체주의,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에서 지원한 집답회 성과를 바탕으로 세 편의 논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범순의 <1930년대 시에서 니체주의적 사상탐색의 한 장면(1)>와 김정현의 <김기림 시에 나타나는 '산책자'의 시선과 '꿈'의 리얼리티> 그리고 최정아의 <동아시아 문학과 여성>(－나혜석, 요사노 아키코, 장아이링을 중심으로)이 그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떠나 이번 집답회는 매우 보람찬 것이었습니다. 리어 우판의 ≪상하이 모던≫과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수잔 벅 모스의 책을 함께 읽은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러한 책들을 읽으면 일종의 '모더니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지만 우리 세미나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동아시아적 범위에서의 근대문학의 전개에 주목했고, 그리고 유럽문화에 전개된 역사 철학과 사상을 도시문화에 깃들어있는 상징, 기호, 이미지들과 엮어서 알 수 있게 된 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집답회를 통해 동아시아 도시와 문학에 대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었으며, 한중인문학회 기조발제에서 <동아시아 근대 도시와 문학>이란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답회는 그 전에 있던 카페 세미나를 계승한 것이었는데, 주로 일본과 한국의 30년대 카페와 문학 관련 자료들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료읽기와 토론을 통해서 벤야민이 보들레르 시에서 읽어낸 '산책가'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번에 수잔 벅 모스의 벤야

민연구서를 읽으면서 그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원래 집담회의 중요 멤버인 김예리도 관련 논문을 준비 중이었지만, 갑자기 강원대 교수로 취임하게 되면서 그 논문을 완성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책가 주제는 김정현 군이 김기림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최정아 양은 리어우판의 ≪상하이 모던≫을 통해서 알게 된 장 아이링의 소설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본래 나혜석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일본의 요사노 아키코에 대해서도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 여성 작가들을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본인도 원래의 기획은 동경과 상해와 경성의 모더니즘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료는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리하는데 시간이 부족했고, 구인회를 독특하게 만든 니체주의 사상을 소개하는 것만 해도 한 편의 논문 분량을 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분에 치중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대련에서 시작된 동경의 모더니즘보다 구인회의 예술사상은 매우 독특하고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논문과 김정현 군의 논문이 그러한 측면을 일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정아 양의 논문은 여성작가들에 대해 상투적인 도구로 등장하는 페미니즘을 넘어서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작가들의 삶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세 문제적인 여성 작가들의 파란만장한 삶은 그녀들의 작품 속에 투사되고 있으며, 그 삶의 의미가 분석될 것입니다.

신 범 순